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연구용역 착수

고창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등의 안전성과 품질을 군수가 책임지고 인증하는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먹거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 가공, 유통단계까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기준을 설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

군은 점점 증가하는 고품질 친환경 농특산물의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친환경 농산물 생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들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교육 등을 통해 고창로컬푸드 안전 인증제의 조기 정착과 지역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안병철 기자

한병락 후보 딸, 미국서 귀국해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락 후보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선거활동을 벌이며 민심잡기에 총력을 펼쳤다.

한 후보는 26일 장날을 맞은 입실시장에서 기초·광역의원 후보들과 합동유세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능력 있고 힘 있는 후보, 깨끗한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한 후보는 “새로운 입실 개막을 위해 갈라진 지역 내 민심을 하나로 묶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신만이 군수의 적임자다”며 “오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버지인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미국에서 귀국한 한수영씨는 “아버지가 지자체장 선거를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모습에 미약하나마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며 “깨끗하고 실력있는 아버지에게 입실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동안 배운 가르침대로라면 입실군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이 당연하다”고 했다. /박길수 기자

“심민 뽑아달라”...우정 지원유세 화제

무소속 심민 입실군수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는데 가뭄 때문에 모내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선거가 끝나고 복귀하게 되면 즉시 예비비를 비롯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농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26일 5일장이 선 시장앞 유세현장에서 포문을 열고 “바쁜 농사철임에도 유세 현장에 참여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오는 6.1일 선거에서 앞도적으로 당선 되도록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어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후에도 입실발전을 위해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과 전주 등 각지에서 30여 명의 친구들이 유세현장에 도착, 심 후보를 외치는 등 아름다운 모습을 펼쳐 주의를 감동케 하기도 했다.

심 후보의 패북 친구인 최명옥씨가 연단에 올라 청중들을 향해 심 후보를 지원하는 우정을 연출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길수 기자

임실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우수군 선정

쾌적한 대기질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생활 1번지 우뚝

임실=박길수 기자

임실군이 ‘전라북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군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미세먼지 대응에 준비된 지자체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했다.

2019년 처음 시행된 후 올해 세 번째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서면 심사 및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자료를 근거로 미세먼지 저감 성과 우수성, 계절관리제 이행실적, 홍보·소통, 시행협조도 등 총 8개 지표에 대해 공정한 세

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졌다.

군의 주요 성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3개소 집중관리 △은행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438대 및 공회전 제한지역 13개소 특별점검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15기 구축 △영농폐비닐 145톤, 폐농약용기 5톤 수거·처리이다.

또한 △영농부산물 21톤, 파쇄기 13대 임대·처리 △미세먼지 저감 관계 부서간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처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미세먼지 저감대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임실군이 저탄소 녹색생활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혜숙 환경보호과장은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우수 군으로 선정된 데는 직원들과 군민들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이

차차 풀리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 주요 버스터미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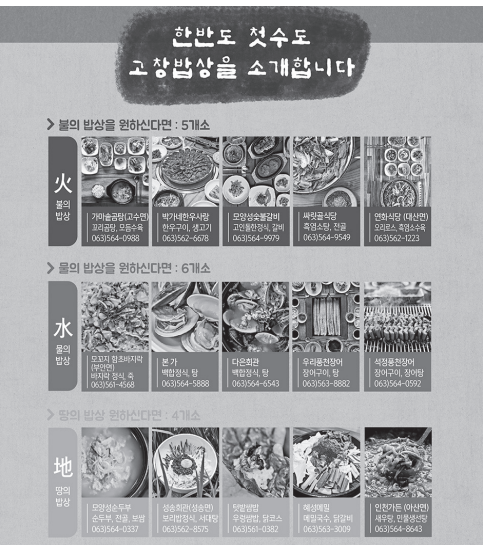
미식도시 고창을 대표하는 열다섯 곳의 맛집인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이 주요 버스터미널에 소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8일부터 한 달간 광주유스퀘어, 전주고속버스터미널, 부산 사북버스터미널의 게시대에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이 소개되고 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은 풍요로운 고창 고창의 청정 농산물로 요리하는 음식점을 모아 만든 브랜드로서 현재 땅·물·불의 세 가지 테마로 15곳의 외식업체 고창의 맛을 전하고 있다.

고창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을 아우르는 예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다. 무기질과 미네랄을 함유한 비옥한 황토가 군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고, 2000년 전 마한 시대에는 보리와 갈대가 펼쳐진 땅이라는 의미의 모로비리국이 문명을 꽃피웠다.

특히 해양 생태계의 보석인 고창 갯벌에서는 품질이 뛰어난 장어, 바지락, 백합이 자라고,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고창의 습지는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다.



박성기 농어촌식품과장은 “주요 버스터미널 광고를 통해 전북 고창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만든 고창밥상을 통해 오감만족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이한기 “진안 인삼 명성 회복 위해 농가 지원”

이한기 무소속 진안군수 후보는 재배면적과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는 진안삼의 명성을 회복하고 가격폭락으로 곤경에 처한 농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파산 위기에 처한 인삼농가에 격안정기금으로 응급 대처하고, 지원에서 배제된 미신고 삼포는 별도의 생산비 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인삼가격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해 인건비도 감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농자재는 해마다 20%씩 상승하고, 인력은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경영

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진안군의 보조사업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인삼재배면적과 농가가 줄며 진안삼은 재배인프라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인삼 농가와 소통이 없어 형식적이고 생색내기 사업 위주로 지원해왔으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적(거치) 등 농자재와 인력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채 기자

백승재 “무투표당선 시의원 음주운전, 민주당 사과해야”

진보당 백승재 전북도의원 후보는 26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제명,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백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무투표당선 후보자가 말도 안되는 음주운전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을 뿐더러 일상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행위”라면서, 비도덕적 행위는 무투표 당선예정자라는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리 자르기식 어물쩍으로 넘기지



말고 군산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공개 사과와 즉각적으로 제명처리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불신했다. /백용규 기자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제품 2개 선정

진안군은 상반기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건보의 프리미엄홍삼정(농축액), 마이홍삼13(추출액) 등 2개 제품을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군에 따르면 상반기 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제품은 농축액 1종, 추출액 4종 등 총5개로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제품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나머지 3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및 보완사항을 거쳐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2012년부터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에 대해 철

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진안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동안 (재)진안홍삼연구소를 통해 연2회 인증제품을 수거해 홍삼성분(조사포닌 함량, 진세노사이드 성분, 잔류농약검사 등)를 검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품목은 농축액, 추출액, 차, 절편, 정과, 분말, 환, 젤리, 사탕으로 총 9개 품목이며, 이번 신규 인증 제품을 포함해 총 58개 업체, 76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양병채 기자

<국제 PEN 한국본부 전북위원회 회장> 지은이 이정숙

계단에서 만난 시간

- 지금은 노랑신호등
- 내 안의 어처구니
- 꽃앞에 데다

이후 4번째 몽골여행 에세이

‘계단에서 만난 시간’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여행에서 만나는 대상과의 미러링을 통해 숨산 사유를 건어올린 에세이다. 순우리말을 가미한 철학적, 문학적 깊이는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끌어낸다. 울컬러로 올려진 몽골 사진들은 현지를 다녀온 사람은 다시 추억을 소환하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몽골 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여행의 진정한 참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길을 떠날 것이다.